



손흥민 '극강' 리버풀전... 토트넘을 구하라

팀 연승 꺾이고 부상 속출... '에이스' 역할 기대 리버풀 이적한 미나미노와 한일 맞대결 가능성

3경기 무승에 핵심 자원의 줄부상까지 악재가 겹친 잉글랜드 프로 축구 토트넘이 '무패 선두' 리버풀을 상대한다. 믿을 건 손흥민의 결정력 뿐이다.

토트넘은 12일(한국시간) 오전 2시 30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리버풀과 2019-2020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올 시즌 리버풀은 '극강'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다. 19승 1무 무패라는 경이적인 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2위 레스터 시티와의 승점차는 13점이나 된다.

세계 최고 몸값의 중앙수비수 파르질 판데이크부터 아프리카축구연맹(CAF) '올해의 선수'로 뽑힌 골잡이 사디오 마네까지, 난공불락의 전력을 자랑한다.

반면, 토트넘은 흔들리고 있다. 정규리그 2경기 연속 무승에 그친 토트넘은 최근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64강전에서는 2부 리그의 미들즈브러를 상대로

결전 끝에 1-1 무승부에 그쳤다. 지난해 11월 말 조제 모리뉴 감독 취임 뒤 연승을 달리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다.

여기에는 핵심 자원의 줄부상까지 겹쳤다. 이미 골키퍼 위고 요리스, 미드필더 탕기 은돔벨레 등이 부상으로 휴업 중이던 토트넘은 정규리그 21라운드 사우샘프턴전(0-1 토트넘 패)에서 '주포' 해리 케인과 '중원의 핵' 무사 시소코까지 잃었다.

손흥민은 3경기 출전 정지 징계에서 복귀한 미들즈브러전에서 케인 대신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섰다. 하지만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현재 6위(승점30)인 토트넘은 리버풀전에서 지면 다시 중위권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손흥민에게는 명실상부 '에이스'로서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야 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에서 리버풀로 이적한 미나미노 다쿠미(일본)가 출전해 한일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 팬들의 관심은 배가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남자배구대표팀 '복병' 카타르에 진땀송

조 2위로 준결승 진출

20년 만의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 남자배구가 '복병' 카타르를 힘겹게 꺾고 아시아 예선에서 조 2위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임도헌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9일 중국 장먼의 장먼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아시아대륙예선 B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카타르를 폴셋트 점전 끝에 세트 스코어 3-2(25-18 28-26 22-25 20-25 15-13)로 제압했다.

8개국이 참가해 우승팀 한 팀만이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2승 1패, 승점 6으로 카타르(2승 1패·승점 7)에 이어 B조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이로써 A조 1위가 유력한 아시아 최강 이란을 준

결승에서 만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 조별리그 1차전에서 호주에 2-3으로 패해 올림픽 본선 진출에 빨간 불이 켜졌지만, 전날 2차전에서 인도를 3-0으로 완파하고 불씨를 살렸다.

3차전 상대인 카타르가 호주를 3-0으로 꺾은 팀이기에 불안하게 보는 시선도 많았으나 한국은 카타르를 숨 막히는 혈전 끝에 격파하고 준결승행을 확정지었다.

한국은 블로킹에서 카타르에 12-16으로 뒤졌으나 박철우(20점)-전광인(16점)-정지석(13점)의 '삼각팬데'가 고른 활약을 펼쳐 높이의 열세를 만회했다.

특히 박철우는 서브 에이스 2개를 포함해 양 팀 최다 득점을 올리며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연합뉴스

테니스 스타들, 호주 돕기 자선경기 출전

페더러·윌리엄스·나달 출전 호주오픈 전 '렐리 포 릴리프'

로저 페더러(스위스)와 세리나 윌리엄스(미국), 라파엘 나달(스페인) 등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 선수들이 호주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한 자선 경기에 출전한다.

AAP통신 등 호주 언론은 9일 "호주오픈 개막을 앞둔 15일 호주 멜버른의 로드 레이버 아레나에서 산불 피해 돕기 자선 경기인 '렐리 포 릴리프(the Rally for Relief)'가 열린다"고 보도했다.

이 대회에는 페더러, 윌리엄스, 나달 외에 닉 키리오스(호주), 오사카 나ومی(일본), 캐럴라인 보즈니아키(덴마크), 스테파노스 치치파스(그리

스) 등 남녀 톱 랭커들이 동참한다.

올해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은 20일 호주 멜버른에서 개막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호주는 동남부 지역의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

지난해 9월 이후 호주에서 계속 번지는 산불은 1000만ha 이상의 면적에 피해를 주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

6일부터 호주 캔버라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자프로테니스(ATP) 캔버라 인터내셔널 챌린저 대회는 산불의 영향으로 캔버라 서쪽 600km에 위치한 밴디고로 개최지가 변경됐다.

호주오픈이 열리는 멜버른 역시 호주 동남부 지역이라 산불의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붕을 닫고 경기할 수 있는 코트가 3개가 있기 때문에 대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차세대 축구꿈나무 왕중왕 가린다"

탐라기중학교축구대회 내달 11일 28개 팀 참가

탐라기중학교축구대회 내달 11일 28개 팀이 참가한다. 제주시체육회는 올해 대회에 전국 7개 시·도에서 28개 팀이 출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축구대회는 제주시와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고 제주시체육회와 제주도축구협회가 주관한다.

참가 팀은 4개 팀, 7개 조로 나눠 풀리그를 펼친 뒤 1·2위 16강

토너먼트를 통해 실력을 겨룬다. 대진표는 오는 29일 감독자 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대회에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 열기를 더하고 있다. 앞서 시체육회가 최근 대한축구협회에 신청해 참가 팀을 접수한 결과 신청 사이트가 열린 지 2분 만에 모집 팀 수가 채워졌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탐라기축구대회가 전국적으로 각광받는 명실상부한 대회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다"며 "제주시와 시체육회 대한축구협회가 유기적인 소통과 대회의 질을 높여 참가자들의 편의를 제공한 결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유나이티드, 김영욱과 입단 계약 체결

전남 유스 출신 미드필더

제주유나이티드가 지난해 전남 드래곤즈에서 활약했던 김영욱(사진)과의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남 유스 출신인 김영욱은 2010년 전남의 핵심 미드필더로 그라운드를 누볐다. K리그 통산 238경기에 출전해 21골 20도움을 기록했다. 연령별 대표팀을 거치며 2011 FIFA U-20 남자 월드컵 16강과 2014년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을 이끌기도 했다.

김영욱은 "전남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면서도 "팀에 빠



르게 녹아들어 제주의 '믿을 맨'이 되겠다. 나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실력과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싶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김지은기자



제주도 서귀포서 소집된 여자축구대표팀 사상 첫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여자 축구대표팀이 2020 도쿄올림픽 최종예선을 대비해 9일 제주도 서귀포시 공천포 전지훈련장에서 소집돼 훈련 중인 모습이 보인다. 연합뉴스

축

수 상

국회부의장(유공자) 표창
국회법제사법위원장 표창

김은선
무등CEO 아카데미 8기
농협회사법인 감미 주식회사 대표
(부: 故 김여원(제주도청 부이사관, 구좌읍 김녕리))
(모: 임정자(구좌읍 김녕리))

국회부의장(유공자) 표창·국회법제사법위원장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족일동

축

취 임

제주시통장협의회 회장

이동운
(삼양동통장협의회장)

제주시통장협의회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시 통장협의회 회장단

일도1동 이기석	용담1동 백경재	오라동 이훈택
일도2동 고광연	용담2동 김행복	연동 박문조
이도1동 박창준	건입동 김광빈	노형동 고성룡
이도2동 강승군	화북동 김경남	외도동 신완섭
삼도1동 양승훈	봉개동 양철우	이호동 김형주
삼도2동 이정수	아라동 김명석	두도동 김상균

축

승 진

사무관

오상석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군위오세 중파 사업공계 종친회

한라일보가 제주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 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도내·친다·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19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원년부터 14회, 제주선 '최다' 기록

도내 언론사 최초 '에브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19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19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